



갈라디아서 본문 비평

송영목 교수(Ph.D., 신약학, 고신대학교)

들어가면서

이 글은 GNT^{5th} 비평장치에 나타난 갈라디아서 본문들 가운데, 비평 등급이 {B}와 {C}인 경우를 중심으로 원문을 추적하여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 P⁴⁶, AD 4세기경 이집트에서 대문자로 기록된 비평사본(시내산사본[~~ⓧ~~]과 바티칸사본[B]), 그리고 주로 AD 10세기 이후 비잔틴계열의 소문자로 기록된 다수사본이라는¹ 사본상의 외적 증거를 살핀다. 그리고 문맥과 바울의 문체와 같은

1. 1970년대가 다수사본의 재탄생 기간이라면, 1980년대는 빠른 성장기였다. 1988년에 설립된 ‘다수사본학회’(The Majority Text Society)는 17개국 160명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나는 신약 원본을 찾는 최선의 방법은 다수사본을 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은 나는 그 가설을 검증하는데 협력하기 원합니다”(I believe that the best approach to the original wording of the New Testament is through the Majority Text, or I wish to cooperate in testing that hypothesis)라는 고백에 동의하는 서명을 해야 한

내적 증거를 고려하며, 『개역개정판』과 『바른성경』 그리고 아프리카 스 성경(*The Bybel: Nuwe Vertaling*; Kaapstad: Bybelgenootskap van Suid-Afrika, 1999)의 번역도 평가할 것이다.² 만약 본문비평 시, 내증

다. 다수사본학회에 독일 학자는 1명도 없고, 주로 미국, 화란, 영국, 그리고 브라질 학자들로 구성되었다. 이와 별도의 다수사본을 지지하는 두 학회가 있다. 영국에서 ‘전통적 본문’(다수사본의 별칭)을 지지하기 위해 1831년에 설립된 ‘The Trinitarian Bible Society’가 있다. 미국 빌라델비아에서 1978년에 설립된 ‘The Dean Burgon Society’(지도자들로
는 D.A. Waite, D.O. Fuller, E.L. Bynum)가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Burgon의 이론은 이 학회로부터 배경을 당했다. 하지만 19세기 말인 1899년에 Marvin Vincent는 원본을 결정하는데 준거 역할을 했던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Textus Receptus(이 용어는 1633년에 엘지 비어가 만들)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고, 1926년에 A.T. Robertson은 “죽은 Anne여왕처럼 TR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B. Metzger는 다수사본은 각주에 처리될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다수사본을 지지하는 경향은 주로 미국의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안에 나타난다. 그런데 다수사본 지지자들은 사본의 보존과 영감을 연결하지만, 다수의 사본이 보존되었다는 사실과 영감은 관련이 없다. 그런데 AD 9세기 전에는 다수사본이 다수가 된 바 없다. 그렇다면 다수사본주의자의 논리대로라면, 다수사본이 널리 보급된 AD 9세기 이전에는 다수사본은 소수였으므로 영감이 안 된 성경이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유통된 많은 대문자 사본들을 21세기까지 보존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도 문제가 된다. 통계상 TR과 다수사본은 2,000군데에서 불일치하기에, 이 두 본문의 일치 비율은 99%이다. 그리고 다수사본과 GNT(그리고 NA) 사이의 불일치는 6,500군데이므로, 이 두 본문의 일치 비율은 98%로 매우 높다. 따라서 비평사본에 근거한 GNT와 다수사본 헬라어 성경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과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이 이유로 GNT 본문은 선택적(eclectic) 방식으로 편집되었기에, 비평사본만 반영한 것은 아니며 다수사본을 배제하지도 않았다. 약 400년 전에 TR이 원본으로 추앙받던 시기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의 내용이 GNT에 기초하여 새롭게 작성되더라도 신앙고백의 내용은 다를 수 없다. 참고. D.B. Wallace, “The Majority-Text Theory, History, Methods, and Critique,” *JETS* 37 (1994, 2), 185-210; D.B. Wallace, “The Majority Text and the Original Text: Are They Identical?” *Bibliotheca Sacra* 148 (1991), 156-58, 169.

2. 본문 비평의 원칙은 송영목, 『헬라어강독의 원리와 실제』 (서울: CLC, 2008), 39-48을 참고하라. 그리고 다수사본보다는 비평사본이 원본에 2배 더 가깝다는 설명은 송영목, “요한 복음 1-12장에 나타난 P⁶⁶과 P⁷⁵의 용례 분석,” 『신약연구』 14 (2015, 2), 183-205를 참고하라.

을 고려하지 않고 비평사본을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새로운 공인본문’(New Textus Receptus)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을 염두에 두고, 2012년에 출판된 Nestle-Aland 28th은 이전의 ‘지엽계보적 방법’(local-genealogical method) 대신에 ‘CBGM’(Coherence-Based Genealogical Method)을 따라 원본을 추적했다. CBGM은 “본문의 전승 가운데 사본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졌고, 수많은 사본이 이미 소실되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사본들의 계보도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CBGM은 결코 사본들의 계보도를 그리려는 것이 아니다. 현존하는 모든 사본을 해독/분석하여 수집되고 정리된 방대한 자료를 적절하게 평가함으로써 개별 사본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³ 하지만 CBGM의 전제와 방법이 정당하더라도, 이전의 지엽계보적 방법의 기여를 무시할 수 없다.⁴

본문 비평의 실제

간략하게 갈라디아서의 본문비평 등급이 {A}인 16개 경우(갈 2:1, 5, 12ab, 20; 3:14, 17, 19, 28; 4:6, 7, 14, 26; 5:23; 6:10, 15)를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다:

3. 연세대 신약학교수 민경식, “Die 28. Auflage des Nestle-Aland: Eine Einführung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3)- 트로비쉬(Trobisch)의 네스틀레 알란트 28판 사용 안내서 소개,” 『성경원문연구』 38 (2016), 261.

4. 신약 사본의 현황은 <http://ntvmr.uni-muenster.de/home>에서 볼 수 있으며, ✠는 www.codexsinaiticus.org에서, 볼 수 있고, 뮌스터대학교의 신약본문비평 연구소 홈페이지 주소는 http://egora.uni-muenster.de/intf/index_en.shtml이다.

- (a) \aleph 와 B가 일치하는 경우는 13회: 갈 2:1 그리고 5(P^{46} 과 다수사본과도 일치), 2:12a(다수사본과도 일치), 2:12b(P^{46} 과도 일치), 3:14(P^{99} 와 다수사본과도 일치하지만, P^{46} 과는 일치하지 않음), 3:17(P^{46} 과도 일치), 3:19(다수사본과도 일치하지만, P^{46} 과는 일치하지 않음), 4:6(P^{46} 과도 일치), 4:7(P^{46} 과도 일치), 4:14(P^{46} 과도 일치), 갈 4:26(P^{46} 과도 일치); 5:23(P^{46} 과 다수사본과도 일치), 6:10(P^{46} 과는 일치하지 않음)⁵
- (b) \aleph 와 B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3회: 갈 2:20; 3:28; 6:15
- (c) P^{46} 과 B가 일치하는 경우는 4회: 갈 1:3; 2:1, 20, 6:15
- (d) P^{46} 과 \aleph 가 일치하는 경우는 1회: 갈 2:5(다수사본과도 일치)
- (e) \aleph 와 다수사본이 일치하는 경우는 3회: 갈 2:1, 20, 6:15

5. 다수사본학자들은 비평본문이 불확실성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본들이 실질적으로 나누어져서 이문들을 지지하는 경우, 다수사본 헬라어 성경은 M^a 라고 표기하는데, 이 경우는 ‘다수사본’이라는 말 자체가 모호하고 불확실성을 조장한다. 이 경우 다수사본학자들은 역설적이게도 사본학에서 실패한 이론이라고 단정을 지은 F.J.A. Hort(1828-1892)의 주장을 따라서 부드럽게 일치시키는 경향을 원본에서 멀다고 간주하거나, 사본의 계보적 방식을 따라 원본을 추적한다. 참고. M. Silva, “The Greek New Testament according to the Majority Text: Review,”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5 (1983, 1), 187; (고든콘웰신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쓴) G.D. Fee, “The Greek New Testament according to the Majority Text: Review,” *Trinity Journal* 4 (1983, 1), 108-09. 다수사본을 강하게 비판하는 Gordon Fee에 의하면, 다수사본이 원본에 일치한다는 다수사본주의자들의 주장은 마치 “20세기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동유럽에 다수가 거주했기에, 아브라함의 외모는 동유럽인과 같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참고로 터툴리안(AD 155-230) 이래로 서방교부들은 헬라어 대신에 주로 라틴어로 글을 썼으며, 동로마의 비잔틴제국이 오랫동안 존재했기에 비잔틴사본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자연스럽다. 로마제국의 라틴어 사용지역에서 제롬의 별게이트를 공식 본문으로 수용했는데, 그 본문은 다수사본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다수사본을 ‘교회 본문’이라고 부를 때, 그리스 정교회의 본문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동방교부들이 사용한 본문은 다수사본은 물론 비평본문과도 많은 부분 일치한다. 참고. K. Aland, “The Text of the Church?” *Trinity Journal* 8 (1987, 2), 141-43.

(f) B와 다수사본이 일치하는 경우는 1회: 갈 3:28

(g) \aleph 와 B는 일치하지만 P^{46} 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4회: 갈 2:12a; 3:14, 19; 6:10

위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A}등급답게 P^{46} , \aleph , B, 다수사본 사이의 유사점이 크다. \aleph 와 B가 일치하는 비율이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일치하는 비율이 낮지도 않다. 오래된 P^{46} 영향에서 벗어나 \aleph 와 B의 독자적 행보가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P^{46} 은 \aleph 보다 B와 더 일치한다. 그리고 B보다 \aleph 가 다수사본에 더 일치한다.⁶

6. 다수사본주의자를 비판하는 학자(예. B. Metzger, J. Jordaán, G.D. Fee, A.J. Bandstra, D.A. Carson)는 AD 350년 이전에는 다수사본(Dean Burgon의 용어로는 ‘전통본문’)의 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빨라야 5세기의 A(그것도 복음서에만 한정되는 현상이기에, 복음서 이외의 본문은 애굽 계열[비평사본]을 따름)나 W에 나타난다고 본다. 하지만 다수사본 학자들은 니케아(AD 325) 이전 교부들의 글에 이미 나타난다고 보면서, 다수사본의 선조본문(혹은 ur/proto-Byzantine text)의 연대를 이르게 잡으면서, 결국 다수사본의 기원은 2세기의 파파루스를 넘어 신약 원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본다. 참고. 달라스신학교의 다수사본주의자 Zane C. Hodges, “Modern Textual Criticism and the Majority Text: A Response,” *JETS* 21 (1978, 2), 152-53. Contra AD 4세기 애굽 작가 Didymus 당시에는 비잔틴 계열의 선조 본문이 없었으며, 존재했다고 해도 주류 본문 전송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보는 Bart D. Ehrman의 박사학위 논문(1986)에 동의하는 Wallace, “The Majority Text and the Original Text,” 157. 그리고 A.T. Bandstra, “The Greek New Testament according to the Majority Text: Review,” *Calvin Theological Journal* 19 (1984, 2), 230. 칼빈신학교 Bandstra교수는 학생들이 다수사본 헬라어성경(1982)을 구매하는데 돈을 쓰지 말라는 말로 서평을 맺는다. 참고로 마 6장과 눅 11장의 주기도문의 원본에 관한 다수사본주의자 Van Bruggen과 Bandstra 사이의 논쟁은 A.J.W. Bandstra, “The Original Form of the Lord’s Prayer,” *Calvin Theological Journal* 16 (1981), 15-37; J. Van Bruggen, “The Lord’s Prayer and Textual Criticism,” *Calvin Theological Journal* 17 (1982, 1), 78-87; A.J.W. Bandstra, “The Lord’s Prayer and Textual Criticism: A Response,” *Calvin Theological Journal* 17 (1981), 88-97을 보라. 무엇보다 다수사본주의자들은 매끄럽게 조화된 독법이 그렇지 않은 독법보다 원본에 더 일치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해야 한다. G.D. Fee,

갈라디아서 1:3 {B}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개역개정),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바른성경)⁷

⌘: πατὴρς ἡμῶν καὶ κυρίου 우리 아버지와 주님으로부터

P⁴⁶, B, 다수사본: πατὴρς καὶ κυρίου ἡμῶν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본의 무게만 볼 때,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가 원본
에 가깝다. 하지만 바울 서신의 인사말의 용례로부터 추론해 보면, ‘우
리 아버지와 주님으로부터’(πατὴρς ἡμῶν καὶ κυρίου)는 바울이 서
신의 인사말에서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다(롬 1:7; 고전 1:3; 고후 1:2;
엡 1:2; 빌 1:2; 몬 3).⁸ 개역개정판과 바른성경 그리고 아프리카스 성
경도 ‘우리 아버지와 주님으로부터’를 따르는데, 원본으로 보면 된다.

2. 갈라디아서 1:6 {C}

“Modern Textual Criticism and the Majority Text: A Rejoinder,” *JETS* 21 (1978, 2),
159-60.

7. 본문비평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한글 번역부분만 밑줄을 긋는다.

8. B.M.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제 2판』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장동수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1994]), 505; D.J. Moo, *Galatians* (BECNT; Grand Rapids: Baker, 2013), 74; T.R. Schreiner, *Galatians*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0), 75.

그리스도의(개역개정, 바른성경)

P⁵¹, 비평사본과 다수사본: Χριστοῦ 그리스도의

D: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예수 그리스도의

P46: Χριστοῦ를 생략

‘그리스도의’(Χριστοῦ)가 {A}등급으로 매겨도 무방할 정도로 사본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 개역개정판과 바른성경 그리고 아프리카스 성경도 이 표현을 따르는데, 이것을 원본으로 보면 된다. 편집자들은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바울서신 사본인 AD 200년경의 P^{46vid}를 고려하여 {C}를 매겼을 뿐 아니라, []안에 Χριστοῦ를 표기했다.⁹ 참고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혹은 ‘주 예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즐겨 쓰지만(고전 16:23; 고후 8:9; 13:13; 갈 6:18; 빌 4:23; 살전 5:28; 살후 3:18; 딤후 1:14; 몬 25),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혹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는 거의 표현하지 않는다.¹⁰ 여기에 내증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9.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제 2판』, 505.

10. Moo, *Galatians*, 86. 참고로 P⁴⁶은 ‘그리스도의’를 생략함으로써 성부에게 종속된 기독교론(subordinationist Christology)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17; 4:6, 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혹자는 말시온이 이 파피루스를 애용했다고 추론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본의 필사자들을 단순한 필사가나 번역가가 아니라 신학자(scribe-theologian)라고 보는 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의 서방본문은 반(反) 유대교적 신학 경향을 보인다는 E.J. Epp 그리고 누가복음의 D사본은 반 유대교적 성향을 보인다는 E.J. Epp의 제자 G.E. Rice가 대표적인 경우다(그리고 M.R. Pelt, K.W. Clarke). 참고, H. Eshbaugh, “Textual Variants and Theology: A Study of the Galatians Text of Papyrus 46,” *JSNT* 3 (1979), 67-68.

3. 갈라디아서 1:8 {C}

너희에게 …… 다른 복음을 전하면(개역개정), 너희에게 ……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바른성경)

B: ὑμῖν εὐαγγελίζεται(현재 디포넛트 가정법 3인칭 단수) 너희에게 (계속) 복음전하다

⌘: εὐαγγελίαται(아오리스트 디포넛트 가정법 3인칭 단수) 복음 전하다

다수사본: εὐαγγελίζεται ὑμῖν(현재 디포넛트 가정법 3인칭 단수) 너희에게 (계속) 복음전하다

이 경우는 단어 순서와 시상(aspect)의 문제다. 1:8 마지막에 ὑμ ἴν 이 다시 등장하기에, 바울은 이 단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수사본은 ὑμ ἴν을 포함하기에 원본에서 멀다.¹¹ 시상과 관련하여, 바울은 1:6에서 갈라디아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현재동사(θαυμάζω)로 표현하여, 계속해서 이상히 여기고 있기에 8절에서도 B처럼 현재 시상의 가정법이 적절하다. B와 다수사본은 현재 가정법을 지지한다. 따라서 1:8은 B처럼 “너희에게 계속 복음전하다”라고 번역하면 된다.¹²

11. 초기 필사가가 ὑμ ἴν을 생략함으로써, 1:8의 권면을 갈라디아교회를 넘어 일반화시키기를 원했을 수 있다는 주장은 Moo, *Galatians*, 87 그리고 Schreiner, *Galatians*, 87을 보라.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일반서신이 아니다.

12. 참고로 1:8에서 개역개정판과 바른성경은 ⌘처럼 짧지만, 현재 시상을 반영하여 번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프리카스 성경은 B에 가깝다. 그렇다면 어떤 표현이 원본에 일치하는

4. 갈라디아서 1:11 {C}

번역하지 않음(개역개정), 번역하지 않음(바른성경)

B(그리고 \aleph^1): γὰρ 왜냐하면

P⁴⁶, $\aleph^{*,2}$, 다수사본: δὲ 그러나

문맥상 이유접속사가 반의접속사(KJV: but)보다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본상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GNT 편집자들은 ‘왜냐하면’을 따랐다. GNT 편집자들은 반의접속사가 바울서신의 유사한 내용을 다루는 본문들(고전 15:1, 2; 고후 8:1)에 동화된 결과로 보았다.¹³ 필사자가 가지고 있는 유사한 내용을 간파하는 간본문적 능력이 사본의 이문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갈 1:10), 그 이유는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본상의 무게가 아니라 문맥을 고려하면, 이유접속사 γὰρ가 원본에 자연스럽다.¹⁴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1:10-13에서 매절마다 γὰρ를 사용한다. 그런데 개역개정판과 바른성경 그리고 아프리카스 성경은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았

가? 갈라디아서 1:8에서 마지막 부분에만 ἡμῖν이 등장하고, 현재 가정법(εὐαγγελίζονται)으로 표기하는 것은 F와 G사본에서 볼 수 있으며, NIV와 REV도 그렇게 번역한다.

13.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제 2판』, 506.

14. Schreiner, *Galatians*, 96. 참고로 필사가에게 더 분명한 접속사(γὰρ, 왜냐하면)를 일반적인 접속사(δὲ,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은 Moo, *Galatians*, 96을 보라.

다.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는 것은 한글 성경 번역의 큰 문제 중 하나인데, 개역개정판의 경우 전후 문맥상 의미가 통하는 경우에 접속사를 굳이 한글로 번역하지 않았다고 한다.

5. 갈라디아서 1:15 {C}

기뻐하셨을 때에(16절에서 번역함; 개역개정), 기뻐하셨을 때(16절에서 번역함; 바른성경)

⌘와 다수사본: εὐδόκησεν ὁ θεὸς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다

P⁴⁶과 B: εὐδόκησεν 기쁘게 여기셨다

주어 ὁ θεὸς가 포함되면 동사의 주체가 더욱 분명해 질 뿐 아니라, ὁ θεὸς가 주어로 갈라디아서 1:1에만 한 번 등장했기에 약 14절이 지난 위치인 1:15에 다시 등장할 필요가 있다.¹⁵ 따라서 원본은 ‘하나님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런데 주어 없이 동사만 등장하는 표현을 지지하는 고대 대문자 사본들의 비중도 무시할 수 없다. 바른성경과 아프리카스 성경은 ‘하나님께서’라고 번역하지만, 개역개정판은 ὁ θεὸς를 번역에서 생략한다.

6. 갈라디아서 3:21 {C}

하나님의(개역개정, 바른성경)

15. Moo, *Galatians*, 107.

⌘와 다수사본: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P⁴⁶과 B: 생략

바울의 짧고 단순한 표현이 원본에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필사자가 τοῦ θεοῦ를 후대에 추가한 것은 유사한 내용을 소개하는 바울의 다른 본문들(롬 4:20; 고후 1:20)에 동화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⁶ 개역개정판과 바른성경 그리고 아프리카스 성경은 τοῦ θεοῦ를 넣어 ‘하나님의 (약속들과)’라고 번역한다. 하지만 ‘하나님의’를 생략하여 이해하면 된다.

7. 갈라디아서 4:25 {C}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개역개정, 바른성경)

B: δὲ Ἀγὰρ Σινᾶ 그러나 하갈은 시내

P⁴⁶: δὲ Σινᾶ 그러나 시내

⌘: γὰρ Σινᾶ 왜냐하면 시내¹⁷

다수사본(‘소문자 사본의 여왕’이라 불리는 33 포함¹⁸): γὰρ Ἀγὰρ

16.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제 2판』, 510. Contra Schreiner, *Galatians*, 243.

17. 5세기의 대문자 사본 C, 벌게이트, 서방교부 그리고 중요한 소문자 사본들(1241, 1739)도 지지하는 이 이문은 20세기 중반까지 가장 선호된 표현이다. 지지자들은 J.B. Lightfoot, B.F. Westcott, Constantin von Tischendorf, U. Borse, K. Lachmann, R. Bentley, S. Légasse, N.T. Wright 등이 있다. 참고. 읍살라대학교의 S.C. Carlson, “For Sinai is a Mountain in Arabia: A Note on the Text of Galatians 4,25,” *ZNW* 105 (2014, 1), 87-88.

18. 참고. Carlson, “For Sinai is a Mountain in Arabia,” 87.

Σινᾶ 왜냐하면 하갈은 시내

이유접속사(KJV: For)는 ⚭와 다수사본이 지지하며, 반의접속사는 P⁴⁶과 B가 지지한다. 바울은 바로 앞 24절에서 ‘하갈’을 언급하기에, 25절에서 반의접속사가 위치할 이유는 없다.¹⁹ 따라서 ⚭가 지지하는 ‘왜냐하면 시내’를 원본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 있다. 그리고 다수사본처럼 24절과 25절에서 연달아 ‘하갈’을 쓸 필요도 없다.²⁰ 갈라디아서 1:1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개역개정판과 바른성경 그리고 아 프리칸스 성경은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았다.

8. 갈라디아서 4:28 {B}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개역개정),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다(바른성경)

P⁴⁶과 B: ὑμεῖς δέ, ἀδελφοί, κατὰ Ἰσαὰκ ἐπαγγελίας τέκνα ἐστέ. 그리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다.

⚭와 다수사본: Ἡμεῖς δέ, ἀδελφοί, κατὰ Ἰσαάκ, ἐπαγγελίας τέκνα ἐσμέν.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다.

19. Contra 나름대로의 내적 증거를 근거로 반의접속사를 원본으로 간주하는 Schreiner, Galatians, 301.

20. 참고로 γὰρ와 Ἀγάρ의 발음이 유사하기에, 필사자가 원본에 있던 Ἀγάρ를 빠트렸다고 보는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제 2판』, 512.

주어가 ‘너희’(ὑμεῖς)인가, 아니면 26절의 영향을 받은 ‘우리’(ἡμεῖς; KJV, NKJV; 참고. 31절의 ‘우리’)인가? 고대 대문자 사본의 무게는 ‘너희’를 더 지지한다.²¹ 개역개정판과 바른성경 그리고 아프리카스 성경은 접속사 δέ(그리고)를 번역하지 않고, ‘너희’를 따른다. ‘우리’는 바울이 수신자들을 향하여 ‘너희’라고 부름으로써(1:3, 6, 7, 8, 9 등) 견지하고 있는 수사학적 힘을 상실하게 만든다.²² 따라서 ‘너희’를 원본으로 간주하여 번역하면 된다.

9. 갈라디아서 5:1 {B}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개역개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바른성경)

비평사본: τῇ ἐλευθερίᾳ ἧμας Χριστὸς ἠλευθέρωσεν· στήκετε οὖν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계속 굳게 서라

다수사본: Τῇ ἐλευθερίᾳ οὖν, ἣ χριστὸς ἡμᾶς ἠλ ευθέρωσεν· στήκετε 그러므로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너희는 계속 굳게 서라

21. 내증 가운데 문맥은 ‘우리’를 지지한다. Moo, *Galatians*, 314.

22. Schreiner, *Galatians*, 304.

접속사 ‘그러므로’(οὖν)의 위치가 다르다. 비평사본(⌘, B)이 지지하듯이, 바울은 설명적 진술(τῇ ἐλευθερίᾳ ἡμᾶς Χριστὸς ἠλευθέρωσεν) 다음에 뒤따르는 권면 부분에 ‘그러므로’를 배치한다. 따라서 ‘그러므로’는 문미에 위치한다. 개역개정판과 바른성경 그리고 아프리카스 성경은 비평사본을 따라 번역한다. 그러나 다수사본처럼 정관사(Τῇ)와 접속사(οὖν)를 첫 문장의 앞 부분에 배치하면, 갈 5장의 첫 절에서 약간 갑작스럽게 시작된 바울의 권면을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²³ 종합하면, 원본에 일치하는 비평사본처럼 번역하면 된다.

10. 갈라디아서 5:21 {C}

투기와(개역개정), 질투와(바른성경)

비평사본: φθόνοι 시기

다수사본: φθόνοι, φόντοι, 시기, 살인,

다수사본의 긴 표기는 두 단어의 발음상의 유사성(‘프쑈노이’, ‘포노이’) 때문에²⁴ 혹은 로마서 1:29의 ‘시기, 살인’을 기억한 필사자가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유사한 발음으로 인해, ‘살인’이 필사자에 의해서 생략되었을 가능성도 있다.²⁵ 하지만 사본상(P⁴⁶, ⌘, B)의 압도적인 무게를 고려하면, ‘살인’(φθόνοι)이 원본에서 생략되었을 가능성은

23.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제 2판』, 513; Schreiner, *Galatians*, 307.

24. Moo, *Galatians*, 369.

25.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제 2판』, 513.

매우 크다. 개역개정판과 바른성경 그리고 아프리카스 성경도 ‘살인’을 생략한다. GNT 편집인들은 A C D G K P 등이 ‘살인’을 지지하므로 {C}를 매겼지만, 오히려 {A}도 가능한 등급이다. 종합하면, 원본에 일치하는 ‘시기’로 번역하면 된다.

11. 갈라디아서 5:24 {C}

그리스도의 예수의(개역개정), 그리스도 예수께(바른성경)

비평사본: Χριστοῦ Ἰησοῦ 그리스도 예수님의

P⁴⁶과 다수사본: Χριστοῦ 그리스도의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갈라디아서 2:16, 3:14, 26, 28, 4:14, 5:6, 24에 등장하므로,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다. ‘예수님’을 포함하면 예배용으로 더 적합하게 보인다.²⁶ 그런데 바울서신에서 정관사 τοῦ를 Χριστοῦ Ἰησοῦ 앞에 붙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에베소서 3:1에 그런 용례가 나타난다.²⁷ 개역개정판과 바른성경 그리고 아프리카스 성경은 비평사본에 맞추어 번역한다. 따라서 원본에 일치하는 표현 ‘그리스도 예수님의’로 번역하면 된다.

26. Schreiner, *Galatians*, 350.

27.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제 2판』, 514.

12. 갈라디아서 6:2 {C}

성취하라(개역개정), 완성할 것이다(바른성경)

B: ἀναπληρώσετε ([명령 의미의] 미래 능동태 직설법 2인칭 복수)

너희는 성취하라

P⁴⁶: ἀποπληρώσετε ([명령 의미의] 미래 능동태 직설법 2인칭 복수) 너희는 성취하라

⌘와 다수사본: ἀναπληρώσατε (아오리스트 능동태 명령형 2인칭 복수) 너희는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2 전반부의 현재 능동태 명령형 2인칭 복수 동사 (βαστάζετε, 너희는 [계속] 지라)와 비교할 때, 후반부에도 ⌘와 다수사본처럼 명령형을 기대하는 것이 원본에서 자연스럽다.²⁸ 그런데 P⁴⁶은 동사의 원형이 B, ⌘, 다수사본과 다르므로, 원본으로 보기 어렵다. 참고로 갈라디아서 6:1에도 현재 능동태 명령형 2인칭 복수 (καταρτίζετε, 너희는 교정하라)가 나타난다. 물론 미래동사가 명령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흔치 않다. 개역개정판과 아프리카스 성경은 ‘성취하라’라고 번역하기에, 위의 3가지 중에서 어느 사본을 반영했는지 모호하다. 그런데 바른성경은 ‘완성할 것이다’라는 미래형을 명령법 대신에 직설법으로 번역한다. 종

28. 갈라디아서 6:2의 원본에 명령형이 두 개 사용된다면, 하나는 현재 사상이고 나머지는 아오리스트 사상이다. 이 사상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쉽지 않다. 현재 명령형으로 표현된 서로 짐을 지는 것은 반복적이지만, 아오리스트 명령형으로 표현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은 단회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합하면, **Ⓢ**와 다수사본을 따라, ‘너희는 성취하라’라고 번역하면 된다.

나오면서

위의 본문비평의 실례 12개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1. **Ⓢ**와 B가 일치하는 경우(4회): 1:6; 5:1, 21, 24. 참고로 {A}등급 16개 가운데 **Ⓢ**와 B는 13회가 일치한다.
2. **Ⓢ**와 B가 불일치하는 경우(8회): 1:3, 8, 11, 15; 3:21; 4:25, 28; 6:2.
3. **Ⓢ**와 다수사본이 일치하는 경우(5회): 1:11, 15; 3:21; 4:28; 6:2. 참고로 {A}등급 16개 가운데 **Ⓢ**와 다수사본은 3회나 일치했다. 따라서 다수사본은 B보다 **Ⓢ**에 더 일치한다.
4. B와 다수사본이 일치하는 경우(1회): 1:3.
5. P⁴⁶과 B가 일치하는 경우(3회): 1:15; 3:21; 4:28. 참고로 {A}등급 16개 가운데 P⁴⁶과 B가 일치하는 경우는 3회다. P⁴⁶은 **Ⓢ**보다 B와 더 일치한다.
6. P⁴⁶과 다수사본이 일치하는 경우(1회): 5:24.
7. 독자적인 경우(2회): 1:8; 4:25.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 **Ⓢ**와 B의 불일치 비율이 낮지 않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즉 갈라디아서의 총 28개의 본문비평 가운데, 이 두 사본의 불일치는 11회나 된다. 다른 특징은 **Ⓢ**와 다수사본 사이의 일치가 많다는 점이다. 갈라디아서의 경우 **Ⓢ**와 다수사본의 선조본문이 유

사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²⁹ 하지만 갈라디아서의 가장 오래된 사본인 P⁴⁶과 다수사본 사이의 관련성은 낮은 편이다. 사본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할 때, 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보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계열’ 안에도 차이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비평 시 사본의 연대와 수를 고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저자가 선호하는 표현이나 전후 문맥 그리고 간본문(예. 갈라디아서와 바울서신 사이의 관련성)의 중요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³⁰ 한글 성경과 아프리카스 성경은 비평사본을 충실히 반영한다.

29. 주로 9-10세기 이래로 보급된 다수사본의 선조본문(ancestral text)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다수사본은 선조본문이 아니라 4세기 대문자사본들(비평사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해도 무방하다. 이런 추론은 ‘파피루스에서 대문자사본을 거쳐 소문자사본으로’ 전수된 오랜 기간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 190년경 터툴리안은 ‘이단에 대항하여’ 36.1-2에서 자신의 당대인이 바울의 원본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세기의 파피루스들은 4세기까지 읽히고 필사되었기에, 4세기의 대문자 사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AD 4세기에 제작된 B는 AD 10세기에 잉크를 다시 입혔고(reink), 분실된 낱장은 16세기에 보충되었다. 5세기경에 제작된 D는 소문자 사본이 개발된 830-860년경에 사본의 상태가 수리되었다. 대문자사본들은 소문자사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카디아대학교의 Craig A. Evans, “How Long were Late Antique Books in Use?: Possible Implications for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25 (2015, 1), 28-30.

30. 본문비평 시 내증과 외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나이브하게 ‘Hort *Redivivus*’ 혹은 ‘TR *Redivivus*’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사본의 필사와 보존 그리고 보급에 있어서 이집트의 탁월한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A.F.J. Klijn, “A Survey of the Researches into the Western Text of the Gospels and Acts (1949-1959). Part II,” *Novum Testamentum* 3 (1959, 3), 172-73.